

4) 역할 분담 및 주민 참여(참여) 적용

역할 분담 및 주민 참여의 지구환경보전 및 인프라에서는 민관협력으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, 지자체, 민간의 협력을 위한 공모사업, 행정절차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. 생태·문화분야 단체로 환경관련 단체, 하수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개소가 확인되었으며, 문화산업 관련 단체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49개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,143개,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4개 총 2,236개소, 교육산업 관련단체는 1,466개소가 확인되었다.

생태적 문화활동에서는 지자체 홍보대사를 위촉 하였으며, 주민참여 예산은 1,450,000천원으로 확인되었다. 민간투자에서는 환경부분 민간투자사업 금액(건수)비율로 경상사업 금액에서 2,380,843천원으로 확인되었다.

문화운동 및 프로그램에서는 생태·문화분야 전문인력으로 환경관련 전문 인력 조사에서 지속가능국 사회적경제과 16명, 청소행정과 46명, 맑은환경과 30명, 도시농업과 18명,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41명, 교통지도과 54명, 도로과 40명, 치수과 33명, 푸른도시과 27명 총 305명의 환경관련 전문인력이 확인되었다. 문화산업 전문인력은 행정안전국으로 자치안전과 20명, 문화체육과 21명, 전자정보과 20명, 민원여권과 30명 총 91명이 확인되었다. 교육관련산업 전문인력에서는 복지교육국으로 복지정책과 38명, 교육지원과 17명, 사회복지과 29명, 여성가족과 40명 총 124명이 확인되었다. 생태·문화·교육 산업체 종사자수에서는 하수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8명,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,660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,494명,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,579명, 교육서